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
	배포일자	2023년 7월 30일(일) 총 3매	
담당 부서	섬해양정책과	담당자	• 섬관광교통팀장 김혜경 ☎440-4891 • 담당자 김영대 ☎440-489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밤의 음악 향연에 피서객 함께 빠지다

- 29일 제7회 '주섬주섬 음악회',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서 성황리 개최 -
- 콘서트, 체험 프로그램 등 마련 ... 숙박·관광 결합된 1박2일 패키지 상품도 -

휴가철을 맞이해 덕적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해안가에서 음악으로 하나가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9일 저녁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에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제7회 주섬주섬 음악회'에 800명의 관광객들이 모여 한여름 밤바다의 낭만을 즐겼다고 밝혔다.

2016년 첫 시작으로 올해 7회를 맞이한 '주섬주섬 음악회'는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공연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며 섬의 매력을 한껏 누리는 인천의 대표 해수욕장 음악회다.

큰 물섬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섬 덕적도의 서포리 해송숲을 배경으로 올해는 그룹 부활의 메인보컬 박완규를 비롯해 모던 팝과 록, 힙합,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해질녘 섬의 분위기를 한층 밝혔다.

또한 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과 섬 주민을 대상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현장 서명운동을 실시해 시민들의 인천 유치 공감대를 섬 지역까지 키워나갔다.

아울러, 8월 8일 ‘섬의 날’을 알리기 위한 섬 홍보 전시관과 인천 제로웨이스트샵과 함께하는 친환경 마켓을 열어 섬과 환경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해안가 곳곳에 수영장과 해변 요가, 부채공예·조약돌아트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마련해 음악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체류형 관광상품인 ‘웅진군 섬 도도하게 살아가기’와 연계해 숙박·배편·식사·관광이 결합된 1박 2일 패키지 상품을 출시해 총 82명에게 특별 할인 금액으로 제공했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변을 무대로 다양한 음악과 체험, 볼거리를 접목한 주섬주섬 음악회가 인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배를 타고 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인천 섬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확대 추진하고 있는 섬 패키지 관광상품 ‘도도하게 살아가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행사 포스터 및 사진



제7회
주섬주섬음악회

2023.7.29.(토)
덕적도 서포티 해수욕장

박완규
이글루베이 · 모볼 · C:Me · 널디나

- 14시 ~ 18시 : 에어바운스 수영장 등 운영
- 19시 ~ 21시 : 음악회
- 21시 ~ : 캠프 파이어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관광공사 후원 won'treez music 후원 용진군